

컴퓨터나 휴대폰을 열었을 때, 찾던 사이트가 한 번에 뜨면 일이 확 줄어든다. 반대로 북마크가 엉켜 있거나 주소를 매번 검색창에 치고 있다면, 자투리 시간이 흘러내리고 집중력이 끊긴다. 몇 년 동안 부서 IT 총무 일과 개인 프로젝트를 오가며 정리했던 사이트 주소모음 방법과, 실제로 자주 쓰는 링크모음을 카테고리별로 풀어놓는다. 주소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건 손에 잘 잡히는 구조다. 폴더 이름을 고민하고, 중복을 줄이고, 각 사이트의 숨은 기능을 알아두면 하루가 부드럽게 흘러간다.

기본 원칙, 링크모음은 구조가 절반

북마크를 많이 모을수록 체감하는 건, 링크를 새로 찾는 능력보다 빨리 꺼내 쓰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폴더를 만들 때는 목적 중심으로 쪼개는 편이 실전에서 빠르다. 예를 들어, "정부/민원"처럼 기관 기준으로 묶기보다 "증명서 발급", "세금" 같은 할 일 기준으로 묶어두면 긴급할 때 멈치하지 않는다. 업무용과 개인용을 섞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된다. 조직에서 공용 북마크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름 규칙 하나 바꾼 것만으로 평균 클릭 시간이 30% 줄었다. "사이트 주소모음"이라고 폴더 하나에 다 몰아넣으면 다시 검색하게 된다. 최상단 폴더는 다섯 개 안쪽으로 유지하는 게 유지보수에 유리하다.

태그 기능을 쓰는 브라우저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기 간 싱크가 끊기거나 모바일에서 태그 검색이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대신, 폴더와 별칭을 적극적으로 쓴다. 예를 들어, "지도" 폴더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을 넣고, 빠른 접근이 필요하면 북마크 이름을 "nmap, kmap, gmap" 같은 짧은 식별자로 바꿔둔다. 주소창 키워드 검색도 강력하다. 크롬과 엣지는 특정 도메인 검색어를 할당할 수 있다. Webtoons.com에 "toon"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주소창에 toon 키워드만 쳐도 사이트를 바로 연다.

빠른 이동 링크모음, 자주 쓰는 다섯 군데

- 정부24 <https://www.gov.kr>, 민원 신청, 각종 증명서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 와 카카오맵 <https://map.kakao.com>
- 국철/KTX 예매 레츠코레일 <https://www.letskorail.com>
- 네이버웹툰 <https://comic.naver.com>, 카카오웹툰 <https://webtoon.kakao.com>

위 다섯 가지만 상단 바에 고정해도 체감 속도가 달라진다. 나머지는 필요할 때 폴더에서 꺼내 쓰는 구조로 두면 깔끔하다.

행정과 세무, 급할수록 바로 들어가야 하는 곳

민원 처리와 세금 업무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다음 단계가 막힌다. 정부24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각종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뺏을 수 있다. 주민센터 운영 시간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크다. 단, 출력이 필요한 문서는 브라우저 팝업을 차단해두면 진행이 멈추니, 인쇄 직전 단계에서 창이 안 뜰 때는 팝업 허용을 잠깐 풀어준다. 출력용 뷰어 설치가 필요한 서류도 있어, 새 PC에서는 한 번 테스트해두는 게 안전하다.

세금 관련은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 조합이 기본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나 발행 내역 확인,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같은 자잘한 확인이 잦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접속이 몰리니, 마감 직전 밤이나 새벽보다는 기간 초반 오전에 처리하는 습관이 유리하다. 전자문서지갑과 연계하면 국세청에서 오는 각종 통지서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데, 알림을 놓치지 않는 점이 좋다. 다만 사업자 다수를 관리한다면 계정 전환이 번거로울 수 있어, 브라우저 프로필을 업체별로 나눠 쓰는 편이 작업 흐름을 덜 끊는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관련 사이트도 자주 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는 보험료 납부 확인과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이 간편하고,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은 가입내역과 예상연금 조

회가 빠르다. 근로자 퇴직정산을 돕는 자리에서 이 두 사이트의 발급 경로를 익혀두면 실패를 줄인다. 고용보험(<https://www.ei.go.kr>)은 실업급여 수급과 교육 이수 확인 같은 일정 관리에 쓰인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미리 연결해두면 로그인 단계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길 찾기와 교통, 목적지까지 고르게 연결하기

지도 서비스는 각자 강점이 다르다. 도보와 대중교통 중심 이동에는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이 지역 정보와 실시간 버스, 음식점 혼잡도 같은 생활형 데이터가 풍부하다. 구글 지도는 해외 여행에서 빛난다.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로드해두면 로밍 데이터가 끊기는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같은 목적지라도 세 서비스의 도착 시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니, 도보 10분 이내라면 네이버, 차를 몰고 수도권 순환로를 탈 거라면 카카오, 외국 도시는 구글, 이렇게 골라 쓰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대중교통 예매는 분산돼 있다. KTX는 레츠코레일에서 좌석을 잡는 게 가장 빠르고, ITX와 누리로 등 일반열차도 동일 사이트에서 관리한다. SRT는 수서고속철도 별도 사이트(<https://etk.srail.kr>)와 앱이 필요하다. 금요일 오후와 연휴 전날 아침 7시 전후는 예매 전쟁이 벌어진다. 잦은 출장이면 결제 카드 정보를 저장하고, 되풀이 검색 구간을 즐겨찾기 등록하며 실패 확률이 내려간다. 항공편은 대한항공(<https://www.koreanair.com>), 아시아나항공(<https://flyasia.com>) 같은 항공사 직영 사이트에서 좌석, 수하물 옵션을 세부적으로 고르기 쉽다. 다만 해외 저비용 항공사는 스카이스캐너(<https://www.skyscanner.net>)나 구글 항공권 같은 메타 검색으로 가격대를 먼저 보고, 직영으로 넘어가 결제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택배는 조회 사이트를 잘 골라두면 분실 의심 상황에서 침착해진다. CJ대한통운(<https://www.cjlogistics.com>), 한진(<https://www.hanjin.co.kr>), 로젠(<https://www.ilogen.com>) 각사 운송장 조회가 기본이고, 여러 송장을 한 번에 관리하려면 스마트택배 앱이 낫지만, PC에서는 네이버 주문내역과 연동해서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편하다. 배송이 멈춘 듯 보일 때는 집하와 간선상차 사이 구간이 길어지는 일이 흔하니, 영업일 기준 2일 정도는 지켜보는 게 좋다. 반대로, 귀중품이면 출고 직후부터 알림을 켜두고 기사님 배정 단계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편이 안전하다.

쇼핑과 중고거래, 가격과 신뢰 사이에서 균형 잡기

대형 커머스는 생필품 재구매가 강하다. 쿠팡(<https://www.coupang.com>)은 로켓배송 범위 안에서 무게 대비 이득이 크다. 물티슈나 사료처럼 주기적으로 떨어지는 품목은 구독으로 전환해두면 품질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11번가(<https://www.11st.co.kr>), G마켓(<https://www.gmarket.co.kr>), 옥션(<https://www.auction.co.kr>)은 카드사 할인과 스마트클럽 같은 프로그램을 엮어야 이득이 커진다. 한 번은 같은 전자책 리더가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는 A몰이 3천 원 싸게 보였는데, 실제 결제는 B몰의 카드 청구할인이 7천 원 더 떨어졌다. 장바구니 화면까지 가봐야 진짜 가격이 보이니, 결제 직전 수치를 기록해두는 습관이 든다.

중고거래는 동네 기반의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과 전국 단위의 번개장터(<https://www.bunjang.co.kr>)를 함께 본다. 희귀 파츠나 구형 전자기기는 전국 단위가 낫고, 부피 큰 가구나 유아용품은 동네 거래가 시간 대비 효율이 좋다. 신뢰를 위해서는 판매자 평판, 직거래가 가능한지, 시세와 얼마쯤 차이가 나는지 몇 가지 신호를 본다. 평균 시세보다 20% 이상 싸면 이유를 먼저 묻고, 직거래 시에는 사진으로 본 기능을 현장에서 바로 점검한다. 택배 거래는 안전결제 링크 외의 송금은 피하는 게 맞다. 급할수록 쉬운 실수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보검색과 자료 보관, 복잡한 사이클을 단순화하기

자료를 많이 모을수록 저장 위치가 무너지기 쉽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본 구성을 단순하게 해두는 게 도움이 됐다. 구글 드라이브(<https://drive.google.com>), 네이버 마이박스(<https://mybox.naver.com>), 드롭박스(<https://www.dropbox.com>), 원드라이브(<https://onedrive.live.com>) 중 주력 하나를 정하고, 장기 보관과 협업 문서는 거기에만 모은다. 회의록, 영수증, 강의자료 같은 폴더를 01업무, 02개인, 03_가계부처럼 숫자로 묶어두면, 기기나 OS가 달라도 정렬이 깨지지 않는다. 백업은 최소 월 1회 외장하드로, 클라우드 서비스 간 교차 백업은 분기 1회

가 적당했다. 사진과 동영상은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를 켜두되, 데이터 요금제 상황에서는 Wi-Fi에서만 동기화되도록 설정한다.

정보 검색은 포털과 메타 검색을 혼용한다. 네이버는 뉴스와 쇼핑, 지식백과 품질이 고르고, 다음은 카페와 오래된 글을 찾을 때 강하다. 구글은 영문 검색과 학술자료에서 압도적이다. 구글 스칼라(<https://scholar.google.com>)는 무료 원문 링크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경우가 많아, 논문 인용 확인과 기초 통계를 찾을 때 시간을 절약해준다. 통계가 필요한 글을 쓸 때는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을 함께 열어둔다. **링크모음** 지표의 계산식과 표본의 차이를 먼저 본 뒤, 수치를 옮긴다. 서로 다른 기준의 수치를 한 표에 섞어놓은 뒤에야 잘못을 발견하는 일이 흔하다.

콘텐츠, 무료웹툰과 합법적 무료 감상의 범위

웹툰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합법 경로가 넓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은 매일 업데이트되는 무료 회차가 기본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추가 회차가 무료로 풀리기도 한다. 카카오페이지 계열은 기다리면 무료, 혹은 포인트 환급 형태를 적용해 유료와 무료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다. 이벤트 기간에는 1화부터 정주행 가능한 작품도 나온다. 다만 불법 스캔본 사이트는 악성 광고와 피싱이 엮이는 경우가 많고, 작가 수익을 직접 해친다. 브라우저가 갑자기 진동하며 “바이러스 감염” 같은 팝업을 띄운다면 의심해야 한다. 합법 플랫폼의 “무료”는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범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안전하다.

영상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와 공영/지상파의 공식 클립 채널을 즐겨찾기에 모아두면 뉴스 요약과 교양 프로그램의 재방을 빠르게 볼 수 있다. 웨이브, 티빙, 넷플릭스 같은 유료 OTT는 계정 공유와 요금제가 자주 바뀌므로, 가족 단위 사용이라면 분기마다 플랜을 재검토한다. 음악은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간 음질과 추천 엔진의 성향이 다르다. 출퇴근 지하철처럼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구간이 있다면, 자주 듣는 플레이리스트를 오프라인 저장해두는 것이 체감 품질을 크게 높인다.

이메일, 캘린더, 메시징, 가장 자주 쓰는 세 도구

이메일은 Gmail(<https://mail.google.com>)과 네이버 메일(<https://mail.naver.com>)을 병행해봤는데, 스팸 필터와 검색 정확도는 Gmail이 앞섰다. 반면 네이버 메일은 국내 쇼핑몰과 공공기관 알림이 잘 도착한다. 중요한 건 발신자 도메인을 기준으로 라벨을 붙이고, 공지성 메일은 자동으로 읽음 처리하여 받은편지함을 가볍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연동 캘린더는 구글 캘린더(<https://calendar.google.com>)가 협업과 공유에 강하다. 일정 제목 앞에 업무, 개인, 가족 같은 접두어를 붙이고 색상 규칙을 유지하면, 한눈에 맥락이 보인다. 캘린더 초대 링크는 메일보다 메신저로 보내는 편이 회신 속도가 빠르다.

메시징은 카카오톡과 슬랙, 디스코드처럼 목적이 다른 채널을 구분한다. 사적 대화창에 업무 링크를 던져두면 추후 검색이 지옥이다. 업무용 링크는 슬랙의 특정 채널로만 공유하고, 공유 직후 북마크 기능으로 채널 상단에 고정한다. 한 번 고정해두면, 새로 온 동료에게 과거 자료를 설명하는 시간이 절감된다.

금융과 결제, 짧은 경로가 곧 안전

인터넷 뱅킹은 은행 앱과 웹사이트 조합으로 충분하지만, 계좌 통합 조회와 이체 기록 확인은 토스(<https://toss.im>), 카카오페이(<https://www.kakaopay.com>)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편하다. 다만 보안 기준은 스스로 한 단계 더 높게 잡아야 한다. 지문과 얼굴인식을 켜고, 이체 한도를 낮춰두며, 새 기기에서는 바로 모든 권한을 주지 않는다. 카드 도난 시에는 앱에서 바로 결제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게 빠르다. 간편결제를 해외 결제에 연결할 때는 수수료와 환율 우대가 카드사마다 달라, 결제 전 실제 청구 통화를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공공요금 납부는 각 기관 사이트에서 자동이체로 묶어두면 잔여 과금이 사라진다. 전기요금(한전 사이버지점 <https://cyber.kepco.co.kr>), 수도, 도시가스는 지역 사업자 사이트가 서로 달라 한 번씩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귀찮더라도 첫 가입 때 납부자 번호와 고객 번호를 정리해두면, 이사 후 명의 변경이 훨씬 수월해진다.

예약, 발권, 현장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링크

공연과 전시는 예매 대기가 전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interpark.com>)은 공연 카테고리 구조가 안정적이고, 예술의전당(<https://www.sac.or.kr>)은 회원 등급에 따라 선예매 혜택이 있다. 인기 공연에서는 예매 페이지를 미리 띄운 뒤, 시간 동기화가 잘 맞는 PC에서 진행해야 실패를 줄인다. 브라우저 자동 완성에 관람자 정보를 미리 저장해 두거나, 모바일과 PC를 나눠 동시에 대기열에 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 동일 계정으로 여러 장치를 쓰면 차단될 수 있으니 규정을 확인한다.

국내 전시는 네이버 예약(<https://booking.naver.com>)과 카카오 예약을 병행해서 살피면 매진된 줄 알았던 회차의 환불분을 잡아낼 때가 있다. 피크 시간대를 피하거나, 첫 회차와 마지막 회차를 노리면 관람객 밀도가 낮아 관람 품질이 좋아진다.

생산성, 생각과 파일이 흩어지지 않게 붙드는 도구

문서 작성과 협업은 구글 문서(<https://docs.google.com>), 시트(<https://sheets.google.com>), 프레젠테이션을 기본으로 두고, 노션(<https://www.notion.so>)으로 프로젝트 대시보드를 관리하는 조합이 많다. 문서의 영구 링크를 만들고, 작업 로그와 이슈, 회의록을 한 페이지에서 넘나들면 회의가 짧아진다. 다만 노션은 페이지가 깊어지면 검색이 전부가 된다. 페이지 이름 앞에 날짜와 고정된 접두어를 붙이고, 완료된 페이지는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며 얇은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개인적 메모는 심플노트와 에버노트, 애플 메모 중 하나만 고른다. 플랫폼 이동을 자주 하면 기억이 흩어진다. 짧은 아이디어는 메모, 실행 가능한 일은 캘린더 혹은 할 일 앱으로 바로 보내는 두 트랙을 유지한다. 메모에 할 일이 쌓이기 시작하면, 메모는 결국 다시 읽지 않게 된다.

업무 외 생활 편의, 자잘하지만 매일 쓰는 곳

날씨는 기상청(<https://www.kma.go.kr>)의 상세 예보가 정확도와 신뢰성이 높다. 미세먼지와 체감온도, 강수확률을 합쳐 봐야 옷차림이 결정되니, 위젯만 보고 나갔다가 낭패 보는 일이 줄어든다. 도로 상황은 교통정보센터(<https://www.roadplus.co.kr>)에서 사고와 공사 정보를 확인하면 내비게이션 경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해외 여행 준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s://www.0404.go.kr>)에서 여행경보와 대사관 연락처를 먼저 본다. 위기 시 연락망을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내려간다.

식당 검색과 예약은 포털 지도와 망고플레이트(<https://www.mangoplate.com>)를 병행한다. 리뷰 수가 적고 평점이 높은 곳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리뷰 수가 많은데 평점이 3.8 전후인 가게는 호불호가 갈리는 메뉴를 갖고 있을 때가 잦다. 예약 가능한지, 웨이팅 시스템이 있는지, 주차가 가능한지를 먼저 체크하면 동행자와의 의사결정이 빨라진다.

링크모음을 더 똑똑하게 쓰는 기술

브라우저 북마크바를 두 줄로 쓰면 화면 공간을 잡아먹는다. 폴더 최상단만 보이고 안쪽은 단축키로 열어서 편이 깔끔하다. 크롬에서는 북마크바를 Ctrl+Shift+B로 숨겼다가 필요할 때만 띄운다. 모바일에서는 홈 화면에 바로 가기를 추가하는 방식이 좋다. 안드로이드는 크롬 메뉴에서, iOS는 사파리의 공유 버튼에서 홈 화면 추가를 찾으면 된다. 자주 쓰는 예약 페이지와 고지서 납부 페이지 정도만 홈 화면에 올려두고, 나머지는 브라우저 내부 북마크로 정리한다.

주소창 키워드 단축은 누구에게나 추천한다. 예컨대, 네이버 사전은 "ndic",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kordic" 같은 키워드를 붙여두면, 주소창에 ndic 단어 형태로 치는 것만으로 바로 검색된다. 사내 위키나 자주 여는 프로젝트 보드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마우스 이동 없이 원하는 페이지를 연다. 이 습관 하나로 하루 수십 번의 반복 클릭이 사라진다.

보안과 프라이버시, 링크모음의 마지막 퍼즐

링크모음이 편하려면 로그인 정보를 많이 저장하게 된다. 편의와 안전은 충돌한다. 수십 개의 계정을 쓰면서도 안전을 지키려면 암기보다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 2단계 인증을 습관화하고, 비밀번호 관리자에 의존하며, 공용 PC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동 로그인을 두지 않는다. 공용 와이파이에서 결제와 민원 처리를 하지 않는 것도 기본 규칙이다. 가끔은 자주 쓰는 링크에 가짜 피싱 페이지가 섞여들기도 한다. 도메인이 살짝 다른데 파비콘과 디자인은 똑같은 식이다. 주소창의 자물쇠 아이콘만 믿지 말고, 인증서 발급 기관과 도메인의 철자를 끝까지 확인한다.

아래는 실수 방지를 위한 짧은 점검표다.

- 간편인증과 OTP, 2단계 인증을 전부 켜다
- 비밀번호 관리자는 하나로 통일하고, 마스터 비밀번호는 오프라인에 적어 보관한다
- 자동 로그인이 필요한 기기는 나만 쓰는 기기로 한정한다
- 공용 네트워크에서는 결제를 하지 않는다
- 알 수 없는 링크는 클릭 전 도메인을 길게 눌러 미리 본다

폴더 구조 예시, 실전에서 통하는 방식

목적 중심 폴더가 유지보수에 강하다. 내 경우 최상단은 “민원/증명서, 교통/예약, 쇼핑/중고, 콘텐츠, 금융, 작업/자료, 생활정보” 일곱 개로 묶어두었다. 각 폴더의 첫 줄에는 진입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주소 다섯 개만 둔다. 예를 들어, “민원/증명서” 폴더 첫 줄에는 정부24,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올리고, 그 아래 줄에는 등기 배송조회, 전자문서지갑, 전자 인감 같은 보조 링크를 넣는다. 업무 전환이 잦은 시기에는 폴더 이름 앞에 숫자를 붙여 정렬 위치를 고정하기도 한다. 정리 원칙이 생기면, 한 분기쯤 지나고 나서 불필요한 링크가 눈에 들어온다. 그때 과감히 지운다. 링크가 적을수록 더 빨라진다.

기기 사이 동기화는 계정 분리를 추천한다. 개인 브라우저 프로필과 업무용 프로필을 분리해 로그인하면, 회사에서 로그아웃했을 때 개인 북마크는 그대로 남는다. 회사를 옮길 때 정리도 간단하다. 프로필 레벨로 끊어두면, 수많은 개별 사이트에서 로그아웃하고 캐시를 비우는 수고가 없다.

자주 받는 질문, 실제 사용에서의 선택 기준

왜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을 둘 다 쓰느냐고 묻는다. 길찾기 품질이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당 내 걸길 우회는 카카오가 종종 더 영리했지만, 실내 지도와 층간 이동 안내는 네이버가 낫다. 새로 생긴 골목길 포장 반영 속도도 서로 차이가 난다. 둘을 모두 켜두면 확률이 올라간다.

무료웹툰은 어디서부터 유료로 넘어가느냐는 질문도 잦다. 플랫폼의 “기다리면 무료”는 합법 범위의 무료다. 그 외에 회당 결제를 요구하거나, 대여권 만료가 한정된 유료가 섞인다. 무료만 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즐겨찾기에서 “무료 업데이트 요일별”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면 편하다. 윈스토어나 통신사 멤버십이 가끔 쿠폰을 풀기도 한다. 이 경우도 플랫폼 내부 결제로 연결된 것이면 안전하다.

세금 신고는 홈택스와 더존, 국세청 앱 중 어디를 쓰느냐가 이슈다. 개인은 홈택스에서 충분하고, 간이과세나 프리랜서 수입 정리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사업자 매출·매입이 흩어졌다면,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한 뒤 업로드하는 편이 오류를 줄인다.

마무리, 링크모음은 결국 나를 위한 동선 설계

사이트 주소모음은 리스트를 늘어놓고 끝나는 작업이 아니다. 내 일의 흐름을 관찰하고, 한 주에 열 번 이상 찾는 지점을 가장 가까운 곳으로 끌어오는 일이다. 일단 만들어두면, 한 번의 클릭이 하루에 수십 번 반복된다. 그 한 번이 짧아질수록 남는 시간은 커진다. 주소는 언제든 바뀌고, 서비스는 새로 태어난다. 분기마다 10분이면 충분하니,

북마크 폴더를 열고 냉정하게 묻는다. 지금도 이 링크가 가장 빠른가. 실전에 맞춰 다듬은 링크모음은 생각보다 더 강력하다. 일과 생활이 자연스럽게 정돈된다.

